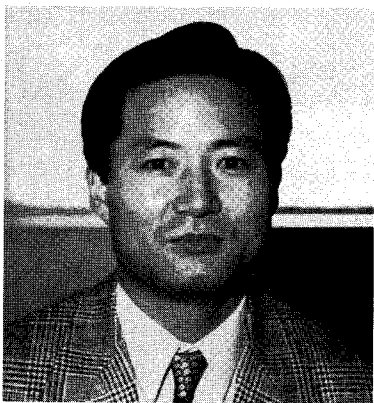


기술우선 내세워 세계를 품안에

성능좋은 제품에 사후관리도 철저

식품포장기계 제작 및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동기계는 87년 설립 이래 축적된 기술개발, 과감한 투자로 포장기계 국산화를 선도해 왔다. 기능인력 중시 경영으로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 회사는 포장기계의 표준화, 규격화, 자동화에 주력하고 있다.



▲ 한동기계 임동희 사장

기술투자 · 인재양성 역점

기술개발만이 세계의 우수업체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 포장기계 국산화에 나선지 8년 만에 세계를 향해 질주하는 한동기계공업(주)(대표이사 임동희)은 세병기, 정렬기, 충전기, 캡핑기, 실링기, 케이스팩커, 셋업케이스, 팰리타이저 등 포장 전라인 관련 설비를 제작하고 있다.

임 사장은 포장기계 시장을 수입

기계가 독차지하던 87년 경제성장에 힘입어 제조업체의 산업설비 투자가 늘어남에도 국내 장치산업이 낙후돼 대부분 외국기계에 의존하던 것을 개선시키겠다는 신념으로 포장기계 산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는 포장기계 개발에 주력하여 장치산업에 속하는 포장기계의 기술 자립을 실현하여 선진 외국제품과의 경쟁에 앞서 세계를 향해 뛰어가는 표본이 되고 있다.

창업당시부터 가장 중점을 두고 투자한 분야가 기술축적과 인력양성이었던 한동기계는 경쟁력 있는 신제품 개발과 국산화에 전념한 결과 한동이 취급하는 포장기계의 국산화율을 95%까지 끌어 올렸고, 머지않아 완전 국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은 지난해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지역에 수출길을 튼 이후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와 수출이 활발해지고 유럽 및 미주지역으로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는 등 품질로서 인정받고 있는 업체이다.

한동은 지난 89년 1년5개월의 개발기간 동안 3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하여 분말세제박스 팰리타이저를 개발한 것을 필두로 분말세제 박스포장기, 동남아에서 처음 개발한 용기정렬기, 검병기, 세병기, 로봇팰리타이저 등 지금까지 16가지의 각종 포장기계 개발과 6가지의 실용신안을 등록했다.

이익 잉여금을 모두 개발비로 투자했던 한동기계는 수입에 의존해 오던 케이스, 충전기, 오리엔테이터(방향전환기), 필러, 랩어라운드 케이스 등을 국산화 하는데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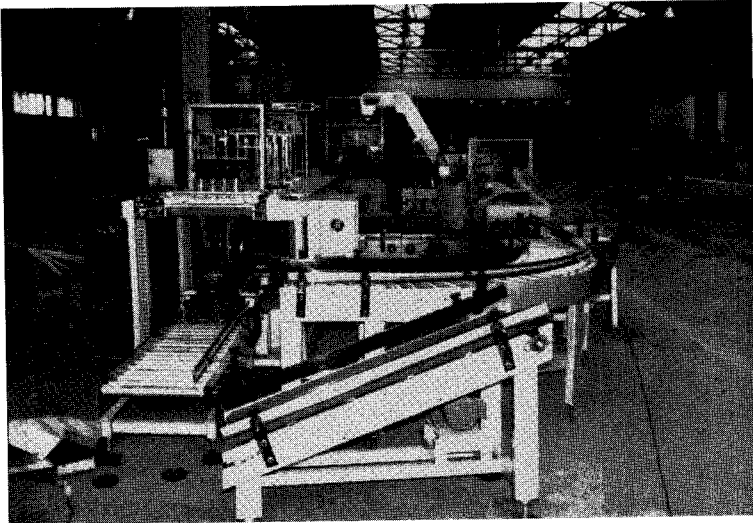
특히 3년간의 연구끝에 국산화한 자동박스포장기는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개발한 제품으로 축적된 기술의 결정체이다.

이같은 연구개발의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 90년에는 우량기술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됐으며, 92년에는 기계류 국산화 유공자로 선정돼 산업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계 최고제품 만들겠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고성능 제품을 저가에 공급해야 경쟁력에 앞설 수 있다”는 임 사장은 창업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업계에 가장 적합한 기종 선



▲ 포장 전라인을 제작중인 한동기계 화성공장

택과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국내외 동종제품을 비교 분석해 제품을 생산했으나 국산품에 대한 인식이 낮아 고객들에게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최대의 애로사항이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기술개발에 주력한 결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제일제당, 럭키, 샘표식품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설비를 납품, 전환기를 맞게 되었으며, 한번 거래한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될 정도로 사후관리에도 철저함을 보여주었다.

한동은 지난해 일본에 3,000만엔 규모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액수로는 적지만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크다.

순수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제품이 기술선진국에 처음으로 수출했다는 것과 기술자립으로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선진기술과 경쟁하는 한동의 기술은 몇몇 부분의 기술 보완이 이루어지면 명실공히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시스템화된 자동생산 라인을 세계 우수 기업들과 맞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수요자의 요구에 신속히 맞춰주기에는 아직 미미한 부분의 해결이 남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FACE, 독일의 KRONES, 일본의 KAWASAKI SEICO, TURN-KEY와 전문화, 세분화 콘소시움을 구성, 기술교류를 통해 완제품의 생산, 공급에 나서고 있다. 신제품 개발은 세계 흐름을 중시하면서 차세대에 합리적인 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표준화, 규격화, 자동화가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다목적 펠리타이저의 경우 세계시장을 겨냥하여 특화시킨 제품으로 지난 5년동안 연구해온 제품으로 물류혁신을 위해 표준화, 규격화, 전문화된 다목적 펠리타이저로 어느 제품, 라인에나 적용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물류분야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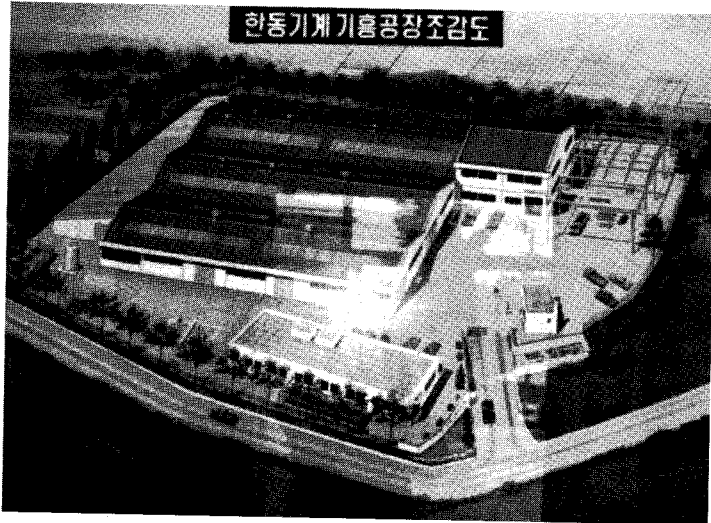
한동은 모델별 표준화를 통한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생산관리 전산체제와 국내수주 및 해외 마케팅, 수출확대를 경영추진 사항으로 삼고 세계시장 진출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한동은 동남아수출촉진단 파견을 비롯하여 92년 싱가포르전시회, 93년 태국전시회, 중국전시회, 북경전시회 등에 참가했고, 올해도 외국에서 열리는 포장관련 전시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동남아, 일본, 중국 등 수출시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동기계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밑바탕 역할을 하는 것은 28명의 연구원들로 구성된 '부설FA한동연구소'이다. 이곳에서 신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설계능력이 있어서는 국내 으뜸임을 자랑한다.

설계·자동화 중심 환경개선

임 사장은 "국내 업체들이 인력에만 의존, 잦은 이직이나 임금인상, 노사분규가 발생되면 어려움이 배가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 중심으로 작업체계를 변화하게 됐고, 앞으로 작업현장도 자동화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물론 한동기계 역시 모든 업무추진 방향이 설계와 자동화시스템에 맞춰 제작,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사장은 지난해 포장기계협회 발족과 함께 홍보이사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동안 과당경쟁, 인력스카웃 등 구조적인 악순환이 계속돼왔다"며 "협회를 중심으로 기술개발협력과 해외전시회 공동참여 등으로 인간적인 친밀감을 갖도록 유도해



한동기계 기흥공장조감도

◀ 한동기계 기흥공장 조감도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는 "앞으로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려면 업계가 한마음으로 결속하여 협력하면 국내 포장기계업계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하기도.

기계업계에 받을 들여논 이상 무엇인가 보람된 일을 하겠다는 임 사장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 가운데 보완돼야 할 것으로 신기술이 개발됐어도 사업화 자금이 부족해 양산을 못하는 업체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개발자금 뿐만 아니라 신제품을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지원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기계를 팔아서서는 부를 축적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기계업계는 여타 업종과 비교해 힘들고 어려운 업종입니다. 때문에 특별한 사명감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요."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사항에 불평하기 보다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임 사장은 "정부의 굴레 안에서 지내기 보다는 시대의 조류에 맞도록 대처해 나가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며 업체들도 반성해야 됨을 강조했다.

한동은 78명의 직원들 가운데 10년이상 장기근속한 사람들이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회사가 안정돼 있다. 한동 직원들은 93년 65억원, 94년 9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올해에는 1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도쿄팩에 단독으로 출품을 준비하면서 한동은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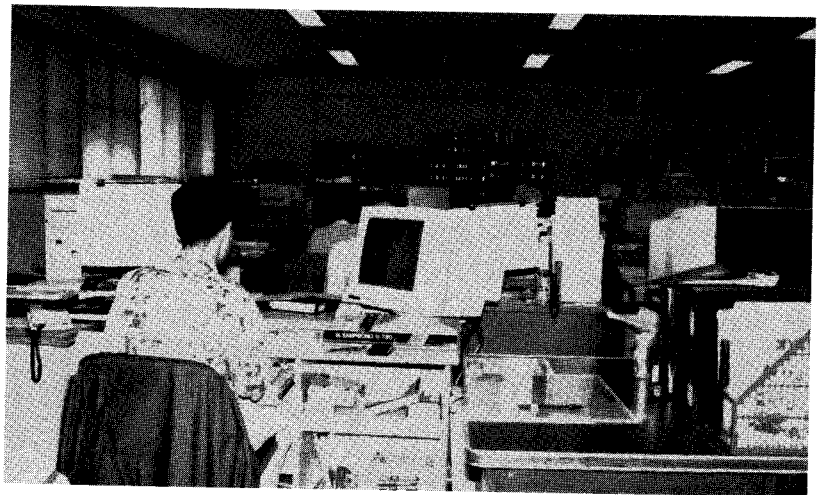
외국의 경우 정부나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그 나라 국가관이 설치되는 등, 관련기관의 지원이 잘 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나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해외 전시회에 자주 나가야 경쟁력이 늘어남에도 대기업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열중, 수입에 치중하다보니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한동은 A/S사업부를 발족하여 자사제품은 물론 수입기계까지 문제를 해결해줄 만큼 기술에 있어서는 국내외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 직원을 비롯한 전직원들은 해외 시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해 세계적인 변동 추이를 파악, 다른 업체보다 앞설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실패없이 성공, 한동이 쾌속항진을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기술을 앞세운 한동 가족들은 세계를 품기 위해 한마음으로 이 시간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

오선진 기자



▲ 개발의 산실 부설 한동 FA연구소